

‘최고의 사립초교’ 관록에 날개 달다

조계종립 은석초교 서울시 우수학교 3개 부문 표창...새싹포교 신기원

불교계 유일의 초등교육기관 은석초등학교(교장 김한기)가 구립 31일 서울시 우수학교 표창을 세 개나 받아 화제다. 이번 표창 분야는 △교육과정 △영어교육 △체육교육 3개 분야다. 전국 600여 초교 중 20여 학교가 수상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3개 부문 표창은 놀랄만한 성과이다.



2006년 신입생 모집 미달, 102명 전학 등 부진에서 벗어나 1.5:1의 신입생 경쟁률과 80여명의 신입생이 자, 국제중 7명 2차 합격 후 추첨 3명 합격, 2007년 서울시 영재교육원 합격을 2위 등은 명문 사립을 자리매김한 은석초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은석초교의 발전에는 2007년 부임한 김한기 교장(58·사진)의 역할이 컸다. 김 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별 초등교육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제13기 조계종 포교사로 포교백서 초등부문을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불교초등교육의 권위자다. 파라미터 중앙위원, 불교스카우트 임원 등도 맡고 있는 그는 학교내 서클담당에서 무려 15년 동안 주말이면 3-6학년들을 이끌고 교과서에 나온 지역을 답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김 교장은 은석초교에 비전을 제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를 조금씩 바꿔갔다. 우선 교육과정 1년 설계 자료집(서울시 교육감 표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개선책을 실시했다. 교원들도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에 열의를 보이며 적극 나섰다.

은석초교는 여러 분야에서 변화했다. 첫째는 공교육 책임제다. 영·수 수업을 늘리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집중수업을 실시했다. 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교의 수업도 강화했다. 거기에 더불어 맞벌이부부를 위한 에듀케어(EduCare)를 신설했다. 에듀케어는 학교수업 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도서관 공부와 과제물 복습 등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제도다. 학력부진아를 위한 무료 국영수교육과 우수학생을 위한 영어 국제중학반과 수학영재반 등도 운영했다. 동대부중 선생님을 초청해 선행학습도 실시했다.

둘째는 학생·학부모 우선교육이다. 과학경진대회, 예술제 등 각종별 초등교육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제13기 조계종 포교사로 포교백서 초등부문을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불교초등교육의 권위자다. 파라미터 중앙위원, 불교스카우트 임원 등도 맡고 있는 그는 학교내 서클담당에서 무려 15년 동안 주말이면 3-6학년들을 이끌고 교과서에 나온 지역을 답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김 교장은 은석초교에 비전을 제시

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를 조금씩 바꿔갔다. 우선 교육과정 1년 설계 자료집(서울시 교육감 표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개선책을 실시했다. 교원들도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에 열의를 보이며 적극 나섰다.

은석초교는 여러 분야에서 변화했다. 첫째는 공교육 책임제다. 영·수 수업을 늘리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집중수업을 실시했다. 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교의 수업도 강화했다. 거기에 더불어 맞벌이부부를 위한 에듀케어(EduCare)를 신설했다. 에듀케어는 학교수업 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도서관 공부와 과제물 복습 등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제도다. 학력부진아를 위한 무료 국영수교육과 우수학생을 위한 영어 국제중학반과 수학영재반 등도 운영했다. 동대부중 선생님을 초청해 선행학습도 실시했다.

둘째는 학생·학부모 우선교육이다. 과학경진대회, 예술제 등 각종별 초등교육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제13기 조계종 포교사로 포교백서 초등부문을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불교초등교육의 권위자다. 파라미터 중앙위원, 불교스카우트 임원 등도 맡고 있는 그는 학교내 서클담당에서 무려 15년 동안 주말이면 3-6학년들을 이끌고 교과서에 나온 지역을 답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김 교장은 은석초교에 비전을 제시



은석초교의 영어교육 현장. 영어교육특성화 및 밸런스교육(BD)은 학생·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어인 교사를 대폭 증가시켰다. 현재 은석초교에는 21개 학급에 21명(외국인 7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다. 필트란, 이머전션, 국제중반, 영어독서토론반 등 다양한 수준별, 특성화 교육도 실시했다. 교과서도 외국 교과서를 그대로 쓰는 타학교들과 달리 직접 교재를 편찬해 한국학생에 맞게 적용했다.

리딩 강화를 위해 미국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사서가 있는 영어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영어도서관은 방과수업 후 도서관에서 외국인 사서와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미국레벨을 평가해주고 그에 맞는 영문책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학생들이 1주일동안 영문책을 독서하고 외

국인사서와 인터뷰 및 지필평가를 하게 된다. 3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영어일기쓰기도 실시했다.

이러한 개선책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산하 12개 학교를 거느린 동국대는 은석초교에 2007년 1억원 2008년 2억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은석초교는 교실당 2000만원을 들여 1·2학년 교실을 가정환경과 비슷하게 리모델링하고 현재 3-6학년 교실도 일하게 외국인사서가 있는 영어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영어도서관은 방과수업 후 도서관에서 외국인 사서와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미국레벨을 평가해주고 그에 맞는 영문책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학생들이 1주일동안 영문책을 독서하고 외

세종, 광운 등 대학 부설 초교입장에서는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방침에 2008년 6억, 2009년 7억 지원 등 지원 폭을 늘려갔고 2008년 12월 26일에는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외교통상 상임위원)과 두산 박용만 회장을 위시한 은석초교 동창회도 결성돼 본격적인 후원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계종립 은석초교의 발전은 인재발사가 급급한 불교계에 하나의 대안모델이 되고 있다. 불자이던 이희인 연화어린이회(지도스님) 법정 및 불교어머니회가 있는 은석초교는 주3회 다도 교육으로 도덕을 가르치고, 방과후 주2회 법회를 여는 등 불심공사와 한창이다. 매일 첫 토요일 학부모 교리강좌와 연2회 학생·학부모·교원 합동사찰순례도 실시하고 반아침경·찬불가합창대회, 부처님그리기대회 등 각종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불교동량 육성뿐만 아니라 30%가 무종교인인 은석초교에서 불교에 대해 모르는 이들도 관심과 친근함을 느끼게 됨은 당연하다.

김한기 교장은 “답사부 등에서 은석초교를 나온 제자가 다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산업으로 씨앗을 심는 불교정신으로 불교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은석초교 발전의 끝없는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4대강 살리기, 매장문화재 보호에 최선”

문화재청,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위한 단계별 수순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립 29일 경북 안동과 전북 나주에서 전격적으로 착공했다. 자연환경 파손은 물론 하천 인근 문화재 훼손이 뻥뻥하다는 판단 아래,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문화재 보존·활용의 균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구립 27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매장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추진 지연 지연을 극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재분포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부 차원의 사업추진단 발족에 맞춰 문화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지방자치단체와 발굴기관을 통해 주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풍화에 스러진 불두 되살려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보물 제666호) 정비



통일신라시대 조성 당시의 원형을 살려 복원된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의 일제강점기 복원전(왼쪽)과 복원 후 모습.

불국도를 꿈꾸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깃든 경주 남산지구에 석불좌상과 석탑, 마애불이 계곡과 능선마다 조화를 이루며 자리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내며 풍화되거나 무너져 훼손된 석조문화재는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보물 제666호, 이후 석불좌상)’도 그 중 하나. 석불좌상은 8-9세기경 만들어진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과 근년에 정확한 고증작업 없이 엉성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석불좌상 정비를 마치고 구립 29일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2007년 3월 정비 시작 때까지만 해도 석불좌상 안면은 콘크리트 몰타르로 적당히 보수처리된 상태였다. 광배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

게 파손됐다. 연구소는 석불좌상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불상의 원위치를 지정을 추정하고, 과학적 보존처리 등을 거쳐 정비를 마쳤다.

석불좌상 불두는 비슷한 시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산 미륵굴 석불좌상(보물 제136호) 등 비교적 안면이 온전하게 보존된 석불을 참조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상호로 재현하고자 했다. 10여 개로 조각났던 광배도 접합해 원형을 살렸다. 결실된 상부는 신석(新石)으로 조형해 통일신라시대 원래 광배의 윤곽에 가깝도록 보수했다.

지병목 소장은 “이번 석불좌상 보수정비를 통해 신라인의 신앙이었던 경주 남산의 정체성을 구명하고 참모습을 재현해 국민들에게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JTS, 北 회령시 영유아·산모 돕기 나서

신년 맞아 8800여 생명에게 희망을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는 구립 30일 부산항에서 북한 합경 북도 회령시 영유아 및 산모를 위한 영양식 3억 8000여 만원 어치를 북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인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www.mamirobot.co.kr

Mamirobot KI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한으로 보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산모용 미역죽 분말 25t, 밀가루 50t, 전지분유 28t, 쌀 20t, 소금 1t으로 1월 1일 회령시 산모 2500여명과 영유아 6300여명에게 제공됐다.

선적식에는 JTS소속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희숙 JTS 영남사무국장은 “새해를 맞아 북한에 있는 영유아와 임신부를 위해 영양식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 먹거리들이 임신부와 어린 새싹에게 생명의 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JTS는 지난 구립 18일 합경



구립 30일 JTS는 부산항에서 합경북도 회령시 영유아 및 산모를 위한 영양식 선적식을 개회했다.

북도 도민병원에 자동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흡입기, 수술대 등 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19종을 지원했으며,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밀가루 1200t, 곡수 500t을 공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재단법인 한국불교원광원

천마산 원광사(圓光寺)

이사장 주지 원광(圓光) 선진(善眞)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8번지
전화 031) 593-8200, 593-9502 / 팩스 031) 593-9503